

## 남과 북에서 13년간 대사직 역임한 알렉산드르 티모닌 대사 단독 인터뷰

#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계속 발전, 증대되고 있다’

이경식 발행인, 김형대·김태문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한민국과 북한이 급속도로 가까워 지고 있다. 이 기회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통 크게’ 만날 수는 없을까? 그걸 누가 주선할 수 있을까?

문득 크게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 그는 드물게 친한 러시아 외교관이다. 아니, 그는 친 ‘한민족’ 인사라고 해야 옳을 것 같다. 왜? 그는 국민에 관한 한 북한도 사랑한다. 그는 한민족을 사랑한다.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는 서울에서 3년 대사직을 역임하고 있다. 그에 앞서 평양에서 2년 남짓 대사직을 역임했다.

“지난 30여년간 저는 줄곧 한반도의 대사와 외교관 직을 맡아오고 있어요.” 지난 1월 9일 서울 덕수궁 옆에 있는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서 가진 코리아포스트 취재팀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맞다. 티모닌 대사는 서울과 평양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을 넘나들며, 요직을 거쳤으며, 2004부터 2006년까지는 6차 회담의 러시아 부단장직을 맡았다. 2011년에는 러시아 외교부에서 러시아-한국-북한 간 3국 특사직을 맡아 3국간 협력 증진직을 맡기도 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북한, 특히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영향력을 미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한다. 그런데, 러시아는 다르다. 전에는 중국이 북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런데 ‘西洋물’을 먹은 김정은은 달라요. 러시아가 더 가까워요.”라고 말하는 ‘공산권 학자’들이 많다.

그래서 물어 봤다. “한반도의 평화와 극동지방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어때요, 한번 나서 볼래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을 한번 주선해 보세요.”

“남북한의 화해와 번영을 위해서라면 본국 정부와 상의 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꺼이 승락했다. 정말 한민족을 아끼는 친한 외국 대사의 면모가 보였다.

다음은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와 교환한 일문 일답의 발췌문이다.

“상트페테르부르크 현대자동차 조립공장은 2016년 전 세계 현대자동차 법인



문재인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좌측)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7년 7월 7일 독일 G20 정상회의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 코리아포스트 영문판 러시아 특집 발행

영문판 코리아포스트 월간지는 오는 2월호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표지에 게재하는 한-러 경험 증진 특집을 발행합니다.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기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과 우수 증진에 盡力하고 있는 단체와 개인의 적극적인 기사 참여를 권장합니다. 특집본은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물론 본지의 해외 발송 채널을 통해서 러시아의 여러 곳에 배포됩니다.

연락처: 010-3388-1682,  
010-7584-5873,  
010-5201-1740,  
02-2298-1740/2



문재인 대통령(좌측)이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와 악수를 하고 있다.

중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지요”라고 소개한 다음 티모닌 대사는 주지 없이 자국 내 한국 기업들을 소개 했다.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롯데제과, 도시락-라잔, KT&G

담배인삼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모두 600여개의 한국 기업이 러시아에 진출해 양국 간 경제협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라고 자국에서 한국 기업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을 강조한 다음 더

많은 한국 기업이 러시아에 진출해 양국의 협력과 우수 증진에 기여해 주기를 희망했다.

역사적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과 러시아는

1990년 수교 이래 다양한 수준과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

러시아는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번영을 이룩해 나가는데 있어 최상의 협력 파트너이다. 특히, 현재의 엄중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러시아와 지속 협력이 중요하고, 극동지역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경제협력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2면에 계속)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좌측)과 송영길 의원.



알렉산드르 티모닌 러시아 대사 부부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오른쪽)가 특별 단독 인터뷰를 위해 내방한 이경식 코리아포스트 미디어 발행인 겸 회장과 다정히 포즈를 취하고 있다. 두 사람은 2008년 티모닌 대사가 처음 한국에 부임한 이래 돈독한 유대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코리아포스트 미디어는 33년전 1985년에 설립되어 현재는 영문 3개의 국문 2개의 매체를 발행하고 있다.